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효과,
개선방안 및 연수 후 효과 연구
- 수업관찰, 설문지 및 면접을
통한 분석 -



2009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은 성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효과,
개선방안 및 연수 후 효과 연구
- 수업관찰, 설문지 및 면접을
통한 분석 -

지도교수 박 매 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은 성

이은성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25일



주 심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문학박사 손 달 례 (인)

위 원 교육학박사 박 매 란 (인)

목 차

영문초록	v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영어교사의 자질과 역할	4
가. 영어교사의 자질	4
나. 영어교사의 역할	6
2. 교실영어	8
가. 교실영어의 정의	8
나. 교실영어의 특징 및 분류	10
다. 교실영어 사용의 효과	14
3.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16
가. 교사 연수 모형	16
나.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현황	18
4. 선행 연구	20
III. 연구 방법	27
1. 연구 대상 및 기간	27

2. 연구 과정	30
가. 국내연수 분석	30
나. 국외연수 분석	30
다. 연수 후 영향 분석	30
3. 자료 수집 및 분석	31
가.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관련 설문지	31
나. 수업 관찰 일지	32
다. 연수 후 개별 면담	32
IV. 결과 및 논의	33
1. 국내연수 분석	33
가. 설문지를 통한 연수 만족도와 효과 분석	33
나. 수업관찰을 통한 분석	47
2. 국외연수 분석	50
가. 설문지를 통한 연수 만족도와 효과 분석	50
나. 수업관찰을 통한 분석	57
3. 개별 면담을 통한 연수 및 연수 후 효과 분석	58
V. 결론 및 제안	61
1. 결론	61
2. 제안	63
참 고 문 헌	67
부 록	73

표 목 차

<표 1> 심화연수 시행실적(2003-2007)	18
<표 2> 연수 유형 및 연수기관	19
<표 3> 연령별 분포	28
<표 4> 교직경력 분포	28
<표 5> 국내연수 연수 목표와 방향	35
<표 6> 국내연수 교과영역별 시간 배정	35
<표 7> 국내연수 교수 요목	36
<표 8> 국내연수 수업 시수	37
<표 9> 국내연수 교수방법론	38
<표 10> 국내연수 교재	39
<표 11> 국내연수 평가	41
<표 12> 국내연수 연수생	42
<표 13> 국내연수 강사	43
<표 14> 국내연수 행정지원인력	43
<표 15> 국내연수 연수지원	45
<표 16> 국내연수 강의 만족도	46
<표 17> 국내연수 연수 환경	46
<표 18> 국내연수 연수 효과	47
<표 19> 국외연수 연수 목적과 교육과정	50
<표 20> 국외연수 교수방법론	51
<표 21> 국외연수 교재	52
<표 22> 국외연수 평가	52

<표 23> 국외연수 연수생	53
<표 24> 국외연수 강사	54
<표 25> 국외연수 행정지원인력	55
<표 26> 국외연수 연수지원	56
<표 27> 국외연수 강의 만족도	56
<표 28> 교사 개별 면담에 사용된 질문	58



부 록 목 차

<부록 1> 국내연수의 만족도 및 개선안에 대한 설문지	73
<부록 2> 국외연수의 만족도 및 개선안에 대한 설문지	77
<부록 3> 국내연수의 개선점에 대한 기타 의견	81
<부록 4> 국외연수의 개선점에 대한 기타 의견	83
<부록 5> 수업 관찰 일지 예시	85
<부록 6> 개별 면담 내용	86



**A Study on the Intensive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Class Observation, the Survey, and the Interview**

Eun Sung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nsive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in Busan, Korea. The questions u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Is the training program effective?
- (2) Do the curricula of the training program satisfy teachers' needs?
- (3) Does the training program have positive after-effects on teaching?

In order to obtain answers to the questions above, various data collecting techniques are used including the survey, the class observation, and the interview. Twenty-four subjects are asked to fill out the two kinds of surveys at different times regarding how they are satisfied with the domestic program and the overseas training program. Furthermore, suggestions for a better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are collected. The questions are modified from Jin's (2006) study. To provid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sults of the surveys, a class observation is recorded during the whole

training program. Additionally, an interview is conducted after the program with two of the trainees to find out how useful the training program 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trainees are satisfied with the domestic training program and the overseas training program, especially in terms of the teaching materials, the class satisfaction, the training support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Second, the trainees are content with the classes related to the teaching techniques that they can use effectively and immediately in the classroom and they think their teaching skills improved through such classes. Third, the trainees find that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 goes up with the program so they feel confident in using classroom English. Fourth, the trainees also learn a lot from other trainees.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program: 1) the trainees would like to spend more time on communication skills than theories, and also they want to have more of systematic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s. 2) the trainees would like to have more of study hall even if it means to cut down the classes for a day. 3) the trainees want to have electives. 4) the instructors should be informed of the levels and the needs of the trainees. 5) the trainees want to get feedback on the evaluation. 6) an extensive research on the trainees' needs should be conducted in the preliminary stage. 7) the instructors should adopt more various teaching methods. 8) in the overseas training program, the trainees want to have cultural experiences rather than classroom learning. 9) the trainees need to be encouraged to meet with each other on a regular basis after returning to each individual school. 10) the training program developers should take advantage of these suggestions for the next progra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는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모든 학생이 기본 생활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을 확충하고자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을 내어놓았다. 7차 교육과정이 소개되면서 부터 강조되어 온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향상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때 정 확성뿐만 아니라 유창성을 구비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영어수업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교실 수업에서 이해 기능(receptive skills)이 강조되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표현 기능(productive skills)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칠 교사들의 영어구술 능력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유창성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재교육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기술부에서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6개월 과정(5개월 국내연수와 1개월 국외연수)의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한국 교원대학교에서는 2003년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명대학교에서는 2005년부터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위탁

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심화연수의 형태가 합숙형, 출퇴근형, 사이버형으로 한층 다양화되었으며, 연수기관도 앞서 언급한 세 기관 이외에 숙명여대, 국제영어대학교, 아주대, 인천교육연수원, 전남대, 크레듀 등 교육부에서 지정한 9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사 맞춤형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방안’에 의하면 2009년부터는 학교 현장과 교사의 수요를 고려해서 연수유형, 연수기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교사의 필요에 맞는 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계획이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관심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당위성이 생기며, 투자하는 노력과 예산에 비해 더욱 높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안점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나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심화연수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어 놓았다(김우형, 2007; 송석요·이선, 2004; 진경애, 2006; 홍상희, 2006). 더군다나 연구자가 직접 연수에 참여하여 관찰일지를 쓰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많지 않다. 본 연구자는 심화연수 참여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연수 관찰일지를 토대로 연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에서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연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 연수 내용을 적용하려고 할 때 실제 학교수업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적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부산에서 실시한 영어교사 심화연수도 2007년 2학기에 시작되어 기존의 심화연수를 통한 연구 결과와 비교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화연수의 실태와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심화연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심화연수의 수업내용이 교사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연구 문제 3. 심화연수가 교실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심화연수에 참가자로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일지를 기록하였다. 연구자가 수업 관찰자이자 수업 참가자로 심화연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수업관찰 일지에서 주관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 관찰자의 역할을 하면서, 관찰 대상에 대해 동참적이고 근접적인 태도를 지니며, 친구로서 피험자를 대하고, 관찰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관찰 내용에 대한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설문에 대한 응답 중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거나 낮게 나타난 부분을 토대로 하여 이와 연관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먼저 연구 대상인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할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실영어의 정의, 특징 및 분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영어교사 연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화연수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볼 것이다.

1. 영어교사의 자질과 역할

가. 영어교사의 자질

영어교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영어실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영어구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창한 영어구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훌륭한 영어교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Allen (1980)은 훌륭한 ESL 교사의 특징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TESOL 학위에 이르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판적 사고도 겸비해야 하고,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요구된다. 겸손함을 갖추어야 하

고, 한층 더 노력하려는 준비성도 필요하며, 문화적 적응성을 지니고, 전문가 정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Brown, 2001b).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선 교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고,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속 배워 나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 하며, 다른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일에 대한 긍지와 열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Hammerly (1986)가 제시한 외국어 교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표어에 유창해야 하고 학생들의 모국어에도 유창해야 하며, 이 두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습 심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교수 방법, 평가 및 교육공학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며, 목표 문화와 학생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김덕기(1997)가 제시한 영어교사의 필수자질은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구사력을 갖추어야 하고, 영어사용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기술을 가져야 하며, 영어와 영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임병빈(1998)은 전문가로서의 영어교사의 자질로 영어 사용기능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언어적 지식에 관한 소양을 지니서 언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교수 학습 원리에 따라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교수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들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유능한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단지 영어구사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언어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통찰력을 지녀야 하며, 부단히 노력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르칠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영어교사의 역할

흔히 영어수업의 장면을 떠올릴 때 교사의 모습은 학생들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기 쉽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으나, 실상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소통중심의 수업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을 Harmer (1992)는 수업 통제자, 학습평가자, 학습활동 조직자, 학습촉진자, 수업참여자, 정보제공자, 개인교수자, 연구자의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수업통제자(controller)로서 교사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언어로 말할지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학습평가자(assessor)로서 교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잘 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수업의 목표에 따라 어떤 형태로 피드백을 줄 지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활동 조직자(organiser)로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지 명확하게 지시해 주어야 하고, 수업활동을 진행하며, 활동이 끝난 후에는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한다.

넷째, 학습촉진자(prompter)로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고,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수업참여자(participant)로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학습분위기를 쇄신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며, 학생들이 영어

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정보제공자(resource)로서 교사는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습에 필요한 언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을 진행시키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개인교수로서 교사는 학생이 개별학습을 할 때 질문에 답을 해 주고 과제수행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investigator)로서 교사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Littlewood (1988)는 영어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영어교사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영어과 교육과정을 교실에서 직접 실현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역할도 한다.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와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교사는 관리하고 조정해 주는 사람이다.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한 후에는 발표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교실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교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교실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학습할 내용을 선정하여 그것을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언어입력과 과제를 제시해 주고 설명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넷째로 교사는 지휘하고 점검하는 사람이다. 영어수업의 발전단계 및 연습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최대한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이 발화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교사는 가능한 말을 적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동기를 유발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다. 교실 수업에서

정보를 제시하고 연습을 한다고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교사가 교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수업장면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중심의 교실에서 교사는 수업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때로는 교사도 직접 학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면에서는 도움을 주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여야 하며, 학습활동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역할을 유기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때 교실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효과성도 증대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

가. 교실영어의 정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영어 환경에 자주 노출되도록 하여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교실 안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영어사용 기회의 주를 이루고 있고 교실 밖에서는 영어 사용 기회가 흔치 않은 EFL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실 안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입력의 양을 늘리고 영어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Hughes (1981)는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내용을 ‘교실영어’라고 정의하였다. 교실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및 장면과 연관된 영어표현을 학습자들이 직접 듣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Willis (1991)는 교사가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활동에 대한 지시어(directions), 인사 및 학생들과 주고받는 일상대화, 토론(debating) 등을 포함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교환 활동에 사용하는 기초영어를 교실영어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교사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영어를 교실영어라고 볼 수 있다. 영어교사는 실제적 영어사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실영어를 매끄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영어사용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연찬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실영어의 특징 및 분류

교사가 사용하는 교실영어는 실제로 모국어 영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영어와는 다르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이전 교육에서 가르쳤던 문법 항목이나 표현을 억지로 끼워 맞추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보다 쉽고 단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뜻한다. 교사가 이렇게 변형시켜 사용하는 교실영어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말(caretaker speech)과 유사하며 Curtain과 Pensola (1994)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다소 느린 말씨(A somewhat slower rate of speech)
- ② 보다 명확한 발음(More distinct pronunciation)
- ③ 더 짧고 덜 복잡한 문장(Shorter, less complex sentences)
- ④ 바꾸어서 쉽게 말해주기와 반복(More rephrasing and repetition)
- ⑤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빈번한 이해 점검
(More frequent meaning checks with the hearer to make sure he or she is understanding)
- ⑥ 몸짓과 시각적 강화 사용(Use of gesture and visual reinforcement)
- ⑦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많이 사용(Greater use of concrete referents)
- ⑧ 학생이 대답할 부분을 일부분 제시 (Scaffolding)

Hughes (1981)는 교실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에 근거해서 교실영어를 분류하였으며, 네 가지 하위영역에는 수업관리, 질문하고 답하기, 상호작

용, 설명이 있다.

1) 수업관리(Supervision)

이는 교사가 수업 내용에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지시하는 데 사용하고 경고나 위협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는 아래와 같다.

예) Look this way.

Listen to what Alan is saying.

Be careful of the lead.

2) 질문하고 답하기(Interrogation)

질문하고 답하기는 다시 질문하기와 질문에 답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질문하기(Asking Questions)는 교사는 영어로 가능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빈번히 그리고 유연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묘사하기, 의견 제시하기, 대화 모의연습하기 등과 같이 특정한 의사소통 과제와 연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예) Where's Alan?

What was the house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질문에 답하기(Replying to Questions)는 교사가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구두로 확인을 해주거나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또는 교사가 통제된 훈련형태의 연습문제(controlled drill-type exercise)나 자유롭게 대화(free conversation)를 할 때 학생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할 때 사용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예) Yes, that's right.

Almost. Try it again.

Very good.

Could you explain what you mean?

3) 상호작용(Interaction)

상호작용은 정서적 태도와 사회적 관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서적 태도(Affective Attitudes)는 교사가 교실 상황에서 필요할 때 분노, 관심, 놀람, 우호, 감사, 동감, 실망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예) That's interesting.

I was a bit disappointed with your results.

Don't worry about it.

사회적 관례(Social Rituals)는 교사가 인사, 사과, 감사, 축하 또는 다른 계절인사(seasonal greeting)와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일상어구(everyday phrase)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예) God bless!

Thanks for your help.

Happy birthday!

Have a nice weekend.

4) 설명(Explanation)

설명은 인지적 관점의 설명과 상황 및 사물에 대한 설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지적 관점의 설명(Metalanguage)은 교사가 해석,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 요약, 정의, 정확한 철자, 정확한 발음, 문법적 교정

등을 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또한 교사가 연습문제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지시를 하는 것이다. 예는 아래와 같다.

예) What's the Swedish for 'doll'?

Can anybody correct this sentence?

It's spelt with a capital 'J'.

Fill in the missing words.

사물에 대한 설명(Reference)은 교사가 사람, 장소, 사건 등과 관련해서 적절한 사실적 배경 정보를 주는 것이다. 또한 사진, 슬라이드(slides), 영화와 함께 구두로 해설(commentary)을 해줄 때 사용하고, 이러한 해설을 더욱 흥미롭고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사적 장치(basic rhetoric devices)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예) After they left the USA in 1965, the Beatles...

This is a picture of a typically English castle.

In the background, you can see...

Let me sum up then.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실영어는 실제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며,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될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교실영어를 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교사들이 교실영어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상황에 맞는 교실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실영어 사용에 대해 훈련받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교실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교실영어 사용의 효과

Krashen (1982)은 외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목표어를 사용하게 되면 학습자의 외국어 습득 및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박원(1992)은 EFL상황에서는 교실 밖에서는 언어입력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실 안에서 목표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영어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최대한 학생들을 영어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교실 밖에서 영어를 접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중 영어를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다.

영어수업에서 교사가 영어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해 갖는 관심과 흥미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곽노행, 2001; 우지연, 2004; 최윤희, 2006). 우지연(2004)은 학생들의 흥미도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집단은 교실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비교집단에서는 한국어 위주의 영어혼용수업을 진행하였다. 영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비교집단보다 수업에 대한 흥미도에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점차 증가하였다.

교실영어의 사용이 학습자의 학습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박상욱, 1996; 조종례, 2003). 박상욱(1996)은 한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실험을 통하여 교실영어 사용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실험집단에서는 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비교집단에서는 주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즉, 교실영어를 사용한 수업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도,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유창성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듣기 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것(김옥련, 2002; 김희경, 2006; 이규선, 2002)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말하기 능력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경, 2006; 선규수, 1998; 원성용, 1998; 정재후, 2001)고 한다.

영어수업에서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습자의 영어 학습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EFL 상황에서 제 2언어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교사들은 한 가지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수업을 전부 영어로 진행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까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Boo (1998)는 교실에서 목표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연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거나 문법적 요소의 설명, 오류 지적 등에 모국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영민(2002)은 초등영어 수업에서의 교사의 교수언어 사용을 분석하였는데, 학년에 따라 영어 사용 비율을 달리해야 하고 학생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도 영어 사용 비율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노경희(2006)는 원어민 교사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것이나 영어수업에서 전적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라고 하는 English Zone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중언어 교사인 한국인 교사가 영어수업에서 한국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실영어를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볼 때 영어 교사는 수업을 할 때 교실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는 우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알아야 하고, 현재 영어 수준을 파악하여 알맞은 수준에서 교실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영어에 의존하는 것 보다 모국어 사용이 보다 효과적인 수업장면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여야 한다. 즉, 교실영어를 주로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되, 한국어 사용이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가. 교사 연수 모형

연수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실효를 거두는 것은 교사 연수를 실행하기 전 어떤 모형을 채택하는가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영어 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단계별 연수모형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김재혁, 2001). 단계별 연수모형은 연수에 대한 교사의 기대, 연수과정을 통한 교수체험, 교사의 의식변화, 연수에 대한 교사의 수시평가 등을 중요시한다. Siedow 외(1985)가 제시한 교사교육모형에서는 연수의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 시켰다. 이 단계들은 교사들의 연수에 대한 필요성 조사, 연수목표 결정, 내용계획, 연수방법 선택, 연수결과 평가, 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분류되어 진다. 이 연수모형은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중시하고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Freeman (1989)은 수업실습에 초점을 맞춘 연수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수모델에서는 연수내용과 방법을 이원화하였고, 연수내용은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 인식(awareness) 등의 4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연수방법은 결과 중심의 훈련(training)과 과정 중심의 개

발(development)의 2가지로 나누어서, 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연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llis (1990)가 제시한 연수모형은 체험실습(experiential practices)과 인식제고 연습(awareness raising practices)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체험실습은 실제 교실수업이나 모의수업과 같이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 실습을 말하고, 인식제고 연습은 교재, 영어교육 방법이나 교수기술, 교수절차 등에 관한 교사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지칭한다. 이와 유사하게 Lange (1990)의 모형은 인식(awareness: 수업 관찰), 실습(practice: 수업계획, 미시적 수업, 모의수업), 귀납(induction: 수업실습, 평가) 등의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Wallace (1992)는 Freeman (1989), Ellis (1990), Lange (1990) 등의 연수모형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성찰모형(reflective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성찰모형에서 연수단계는 훈련 전 단계(pre-training stage), 전문 교육/개발 단계(professional education/development stage), 목표달성 단계(goal stage)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교육자가 이론과 기술을 함께 결합해서 수업실습을 하고, 이 실습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수업실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연수모형들에서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이론 및 기술에 대한 이해와 체험, 자기 반성을 주요 단계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수 참여 교사들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 연수 후 학교로 돌아간 교사들이 교실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수 후에 일어나는 효과와 수업에 적용해 본 내용을 연수 참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공유하고 토론했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7a, 2007b)에서 발표한 영어교사 심화연수 추진계획에 의하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초·중등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 운영 능력 배양하고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 및 수업능력 향상으로 영어교육 내실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직 영어교사의 말하기와 듣기능력을 신장하고 교수·학습 기법을 연마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표 1>을 보면, 2003년도에 200명의 초·중등 영어교사가 심화연수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점차 확대되어 2006년 39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연수가 실시되었다. 연수기관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과 계명대학교이며, 연수형태는 합숙형으로 진행되었다. 연수대상 교사 선발 방법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의 연수는 국내연수 5개월과 국외연수 1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심화연수 시행실적 (2003 - 2007) (단위: 명)

연도	'03	'04	'05	'06	'07 상반기	계
연수인원	200	245	333	396	235	1,409

<표 2>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영어교육혁신방안('06.11)'에 의거, 영어교사 심화연수 인원을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연수 인원을 952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연수 기관을 확대하고 연수 유형을 다양화하여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합숙형은 일과 중·후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연수 환경에서 영어 구사력 및 수업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출퇴근형은 일과 중에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형 연수를 신설하여 정상 근무

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 형태를 다양화 하였다.

<표 2> 연수 유형 및 연수기관

구분	합숙형	출퇴근형	사이버형
근무 유형	파견	파견	정상 근무
연수 인원	235명	327명	155명
국내 연수	5개월(합숙)	5개월(출퇴근)	5개월(주5회 1일 2시간)
국외 연수	1개월(합숙)		
연수 기관	교원대 계명대	국제영어대학원대(서울) 숙명여대(서울) 부산외대(부산) 전남대(광주) 인천교육연수원(인천) 아주대(경기)	(주)크레듀

심화연수는 기존의 단기적, 일시적 연수 프로그램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나, 아직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배경남, 2006). 하지만 2008년 1월 발표된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서는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규모를 확대하여 매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1,5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1,500명은 국외 심화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영어교사들의 실력 증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4. 선행 연구

우리나라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6개월 과정의 심화연수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수에 투자되는 비용과 노력이 큰 만큼 시행 단계에서의 효율성과 시행 후의 실효성에 대해서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영어교사연수의 실태와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후, 심화연수를 분석한 연구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영어교사 연수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은정(2003)은 중등 영어교사의 기관중심 영어연수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05명의 부산지역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력이 증가할수록 영어 관련 연수를 받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것은 승진을 위해서 학점을 따기 쉬운 다른 분야의 연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어 관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9%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67.6%의 교사들이 자신이 받은 영어연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등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59%의 교사가 영어의사소통능력이라고 응답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영어교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직 교육의 대부분이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므로 연수대상 교사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방법, 시기, 강사진, 교육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배경남(2006)은 중등교사 연수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교원 연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장점으로는 우선 자격연수나 직무연수에서 영어회화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양적으로 팽창하였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공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송정실(199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교양·교직 과목과 전공의 비율로 2:8을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듯하다. 셋째, 심화연수과정과 수준별 연수과정이 도입되어 기존의 단기적, 일시적 연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ICT를 활용한 영어 교수방법에 관한 연수의 활성화와 원격연수원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배두본 외(2001)가 지적하였듯이 기관 중심의 출석 연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수 참여 기회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연수 참여자로 배정하거나 중복연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제한이 있다. 셋째, 경력자들이 영어 연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를 경력자에게 실시함으로써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전공 교과에 대한 원격연수 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연수 후 평가에 대해 교사들이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소 완화된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직무 연수과정에 개설된 과목에서 영어회화 관련과정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석요·이선(2004)은 중등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분석과 교사들의 필요분석에 근거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71명의 현

직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사가 영어 능력을 중이상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중이상이라고 대답하여 영어 수업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영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영어회화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이와 밀접히 연관되는 듣기·말하기 지도법과 교실영어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연수 후 도움이 가장 도움이 된 분야도 영어회화라고 응답하였다.

충북의 연수원 세 곳에서 진행되는 1정 교사 자격 연수, 직무연수, 심화연수를 분석하였는데, 교사들이 장기 연수 혹은 자율 연수 등을 통하여 영어 실력을 신장시키기를 위하여 학기 중 부분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외연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외에 Pass, Fail로 단순화 하는 등 평가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수 시작 전에 필요조사를 실시하여 연수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원어민 강사의 질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홍상희(2006)는 중등교사 영어과 연수 프로그램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영어과 연수기관 여섯 군데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여한 연수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국외현장연수였고 다음으로 심화연수를 들었으며, 만족스런 이유로는 연수내용의 참신성 및 현장수업 적용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연수로는 1정연수를 꼽았고,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참신성이 결여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운영방식이 뻘뻘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바람직한 영어과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영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교육학 이론에 관한 해박한 이해보다는 본인의 영어 기능을 개발하여 유창한 사용능력을 기르고

영어와 영어교육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알며 영어과 교육과정, 수업기술과 교재, 평가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원하였다.

연수 내용을 교실수업에 적용하는 정도는 학기별 1, 2회 및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수에서 배운 교수법의 현장 수업 활용이 힘든 요인으로서는 입시 위주 수업, 행정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익숙한 방식 교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직전 연수와 반복되어 참신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흥미를 갖기 힘들게 했고,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었다고 하였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지 않아 학교급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평가 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영어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영어교사 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기(2004)는 국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중등영어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2003년도에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미국의 위스콘신대학교와 협력하여 개발한 연수 프로그램이 기존 연수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 연수 참여교사 95명과 2004년도 연수 참여교사 84명, 원어민 강사 16명, 한국인 연구사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학교방문, 수업관찰, 면담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것은, 먼저 주요 연수과목을 기존의 8개에서 영어교사에게 필수적인 6개로 축소하고, 매일 한시간씩 자기개발을 위한 자유탐구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과제를 주요연수 과목당 기존의 두 번씩에서 한 번씩으로 줄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연수 선택과목 시간을 총 4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여 자기의 특기 영역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연수원을 영어구역으로 정하여 모든 대화를 영어로만 말하도록 하였다.

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수교과목 사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강사들과 과목 협의시간을 마련하여 서로 다른 과목들과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영어능력에 따라 수준별로 학급을 구성하고, 연수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수시간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경애(2006)는 영어교사 연수 개선에 대한 연구에서, Woodward (1991)가 제안하는 교사연수 프로그램 평가 틀을 이용하여 영어교사 심화연수 프로그램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이는 심화연수 평가의 영역을 목적, 교육과정, 인적 요소, 지원의 네 가지 대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목표 설정, 평가, 교수 요목, 수업 시수, 교수 방법, 교재, 평가, 연수생, 강사, 운영 및 관리자, 가시적 요소, 비가시적 요소, 후속 지원 등의 1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내 연수기관의 심화연수 운영에 대한 설문지(365명), 국외연수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174명), 영어교사 심화연수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318명)을 시행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한 제안점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강화하고, 교사로 하여금 이론에 입각해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교사 연수를 위탁 받은 기관은 연수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연수 기간을 의무화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원어민의 경우 TESOL 자격증이나 학위가 있는 강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기 중에 전문 교사연수자의 장학을 받아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 교육과정과 관련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연수 프로그램 평

가 기관을 별도로 두어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종 연수에 대한 질 관리를 해야 하며, 국외연수 기회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우형(2007)은 계명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합숙형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2006년 2학기에 심화연수에 참여한 영어교사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연수 개선 방안으로는 연수 내용을 내실화하고, 원어민 강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체 세미나를 정례화 할 것을 들었다. 또한 실제적 상황에서 언어 사용을 하는 수업을 점차 증대시켜야 하고, 연수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수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심화연수를 마친 우수 연수생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외연수기관을 통해 우수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지학교 수업참관 및 강의 프로그램 개발과 주말 문화체험 기회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며, 국외 연수기관 숙박시설의 쾌적성과 용이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수의 영어교사들은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으며, 영어교사 대상의 단기연수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장기 연수 및 심화연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영어교사의 자질과 필요로 하는 연수 과목에 대한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들었으며,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심화연수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고, 연수 개선에 대한 제안들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비롯하여 수업관찰일지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본 심화연수의 연수생 만족도를 분석해 보고, 새로운 제안들을 제

고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자인 심화연수 참여 교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기간 및 절차를 자세히 알아본 후,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및 기간

가. 연구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교육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등영어교사 재교육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현직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A대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영어교사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봄에 실시된 제2기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심화연수에 참가한 교사는 모두 24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수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21명(87%)이고 남교사는 3명(13%)이다. 일선 학교에 있는 영어교사가 대부분 여자이므로 연수 참여자도 여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대는 20대가 1명(4%)이고, 30대가 6명(25%), 40대가 16명(67%)이며, 50대는 1명(4%)이다. 연수생을 모집할 때 교직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대 교사수가 적으며, 30대와 40대 교사가 22명(92%)으로 다

수가 이 연령대에 분포한다.

<표 3>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인원수 (N=24)	1	6	16	1

<표 4>를 보면 교직경력은 15년-20년 미만인 교사가 10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40대 연수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학교급별 분포로는 중학교 근무자가 16명(64%)이었고, 인문계열 고등학교 근무자는 4명(18%), 실업계열 고등학교 근무자가 4명(18%)이었다.

<표 4> 교직경력 분포 (2008년 7월 기준) (단위: 명)

경력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인원수 (N=24)	7	1	10	6

나.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08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연구 계획 및 자료 수집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의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기존의 교사 직무연수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고, 그 중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숙형 및 비합숙형 심화연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심화연수도 점차 확대 실시되는 추세이고, 심화연수 제도, 프로그램,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부산 A대학교에서 실시되는 심화연수에 2기생으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본교에서 진행되는 심화연수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음을 착안하여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수업을 들으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관찰일지에 기록을 하였다. 연수에 참여하면서 심화연수의 효과성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연수 참가 교사들로부터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 연수에 대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고, 국내 연수가 끝나는 7월 중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외연수가 종료되고 난 후에 국외연수에 관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수생들이 복직한 후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거나 연수 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개별 면담에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여 2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11월 초에 인터뷰에 응하고자 한 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국내연수에 관한 설문조사 및 국외연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고, 수업관찰 내용 중 설문조사의 결과와 관계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면담 과정은 음성파일로 저장하였고 모두 전사하여 이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2. 연구 과정

가. 국내연수 분석

국내연수에 대한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 자료에서 시행된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국내연수(2008년 3월 3일 - 2008년 7월 22일)가 끝나는 시점인 7월 중순에 설문을 실시하여 국내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모두 14개 항목에 대한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해당하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을 하면서 3월에 부산 A대학교에서 배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관찰내용을 더하여 연수 효과 분석을 하였다.

나. 국외연수 분석

국외연수에 대한 설문지도 국내연수에 대한 설문 문항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였다. 국외연수에 참여하면서 국내연수와 성격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복직을 하고 난 뒤 국내연수에 대한 설문 내용을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연수 내용을 적용하고 효과에 대해 고려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진 뒤 10월 13일에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0월 15일에 설문지 24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다. 연수 후 영향 분석

면담을 통하여 연수 후 영어구사력 및 교수법이 향상되었는가와 이러한

영어구사력 및 교수법 변화가 교실수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사들을 두 반으로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각 반 대표로 활동한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이들은 연수원과의 정례모임, 회의참석 및 연수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여서, 연수에 대한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 샘플로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면담은 11월 초에 80분간 진행되었으며, 연수 및 연수 후 활동에 대한 6개의 질문을 하였고,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관련 설문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연수와 국외연수의 만족도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문항은 기존의 연구(김우형, 2007; 진경애, 2006)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일부 선택·수정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연수생의 기초조사에 대한 항목은 보기를 따로 제시하여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연수에 관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각 항목에 대하여 Likert의 5점 평가척도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1점은 '매우 그렇지 못하다', 2점은 '그렇지 못하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대체로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설문지를 회수한 후, 설문지별로 응답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였다. 그 후

문항별로 취합하여 각 척도별 응답 회수를 기재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평균값에 대한 해석은 1-3점 사이의 급간을 불만족으로 보고, 3-5점 사이의 급간을 만족으로 간주하였다. 기타 의견은 따로 취합하여 <부록 3>과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나. 수업 관찰 일지

수업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수기간(3월 3일 - 8월 28일) 중 수시로 관찰 일지로 정리되었다. 수업 활동 및 진행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연수생들의 반응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후, 연구자의 소견 및 교실수업에 연관지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기록하였다. 관찰일지 예시를 <부록 5>에서 제시하였다.

다. 연수 후 개별 면담

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 과정을 녹음하여 인터뷰 로그로 전부 전사하였다. 인터뷰 로그는 수집 즉시 예비분석 하였는데,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중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관련 있는 내용끼리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면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6개의 질문에 대한 두 교사의 답변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부록 6>에서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업관찰일지 및 면담 내용을 토대로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논의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연수와 국외연수에 대한 연수생의 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결과 중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연수 중에 기록한 수업 관찰 내용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국내연수 분석

가. 설문지를 통한 연수 만족도와 효과 분석

2008년 부산 A대학교 1학기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산 A대학교에서 발간한 연수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기술된 심화연수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다.

(1) 연수 목표와 방향

본 연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내연수 및 국외 실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어교사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신 교수이론 및 교수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현장학습에서 다양한 최신 교수법을 활용하여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수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1)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한다.
- 2)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둔 학습언어 능력을 강화한다.
- 3) 영미인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영어 학습에 적용한다.
- 4)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5) 최신 교수·학습 이론 및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6)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7) Session 별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 강화훈련을 실시한다.
- 8) 능력별 학급편성을 하여 수준별 수업을 한다.

본 연수는 국내연수 5개월과 국외연수 1개월로 진행되었다. 국내연수에서는 전 과목을 원어민 교수에 의한 몰입식 교육(Immersion Education)을 실시하였고, 이론을 최소화하고 실습 및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였다. 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수강 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과목별(의사소통중심 과목, 교수법 과목, 내용중심학습 과목) 원어민 교수를 배정하여 연수생들이 교육 및 연수에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국외연수의 방향은 문화와 생활방식 등 체험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용적 표현을 습득하도록 하며, 현장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교수법과 교재개발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표 5>를 보면 연수의 방향에 대해서는 평균 3.92로 보통 정도로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화연수의 목표와 연수 참가자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연수의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수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4.33의 수치를 나타내며 대체로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화연수를 통하여 연수 참가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잘 부합되도록 연수목표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국내연수 연수 목표와 방향 (N=24)

설문 내용	M
6. 연수 목표는 적절한가?	4.33
7. 연수의 방향은 적절한가?	3.92

(2) 교수 요목

교과목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사소통중심 과목(English communication courses), 교수법 과목(English education courses), 내용중심학습 과목(English content-based courses & cooperative activity cours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시수는 <표 6>에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의사소통중심 과목에는 주당 16시간이 배정되어 과정 총 시수는 246시간이다. 교수법 과목은 주당 15시간 운영되며 과정 총 시수는 253시간이며, 내용중심학습 과목은 주당 12시간으로 과정 총 시수는 122시간이다.

<표 6> 국내연수 교과영역별 시간 배정

영역	주당 기준시수	과정 총 시수
의사소통중심 과목 (English communication courses)	16	246
교수법 과목 (English education courses)	15	253
내용중심학습 과목 (English content-based courses & cooperative activity courses)	12	122
총 계	43 시간	621 시간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연수목표에 맞게 교과목이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3.75로 나타났고, 각 교과목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해서

는 3.46의 만족도를 보였다. 비교적 만족스럽게 교과목이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수생들은 교수법 보다는 영어구사력의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론 과목보다는 듣기와 말하기와 같이 유창성을 키우는 강좌를 더욱 늘리고 시간안배를 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과목 수가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하였고, 교과목간에 과목명만 다르고 성격이나 배우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며 연수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영어교육정책, 발음클리닉 등)의 과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표 7> 국내연수 교수 요목 (N=24)

설문 내용	M
8. 연수목적이 달성되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가?	3.75
9. 각 교과목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있는가?	3.46

(3) 수업 시수

심화연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수업제로 운영되었고, 하루 7시간의 수업(오전 9시-오후 4시 50분, 중식시간 50분(12시-12시 50분) 제외)을 실시하여 주당 수업 시수는 35시간이었다. <표 8>을 보면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3.21이라는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보통 정도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업 시수는 적절한 편이었고 교과목의 시수도 연수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업 시수에서 주목할 것은 연수생에게 각자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제시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만족도가 2.33으로 연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화연수에서 연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은 제시되지 않았다. 연수생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연수생의 필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연수 참가자가 정해지면 개인의 연수목표가 무엇이며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분야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하여 필히 교과목 개설에 반영하여야 하고, 연수생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다. 또한 과중한 수업 시수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1시간 정도는 자습시간(study hall)으로 전환을 하여 복습 및 과제준비에 할애하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연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표 8> 국내연수 수업 시수 (N=24)

설문 내용	M
10. 연수생에게 적절한 수업 시수였나?	3.21
11. 연수생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이 제시되는가?	2.33
12. 각 교과목의 수업 시수가 연수목표를 고려하여 배정되었는가?	3.46

(4) 교수방법론

교수방법론의 경우 담당 교수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연수 목표에서 언급하였듯이 연수 참가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론과 발표 등의 방법을 지향하였다. <표 9>를 살펴보면 연수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였는가에 대해서는 3.63이 만족도를 표했고 연수생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수방법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연수생 참여비율도 만족도가 3.88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방법이 개인차를

고려하였는가에 대해서는 2.25의 수치를 나타내어 불만족스러운 정도였고, 수업 중에 연수생들의 수준차이가 고려되지는 않고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보다 나은 심화연수가 되기 위해서 수업 중 강사보다 연수생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참여 연수 강사들이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는지 혹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수업 시에 강사의 교수 스타일과 연수생의 학습스타일의 기대치가 상이하거나 불일치하여 조정이 필요하였다.

<표 9> 국내연수 교수방법론 (N=24)

설문 내용	M
13. 연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나?	3.63
14. 좋은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는가?	3.79
15. 교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활동을 보여주는가?	3.54
16. 연수생 참여식 수업 비중이 적절한가?	3.88
17. 연수생의 수준차이를 고려한 교수법이 준비되었는가?	2.25

(5) 교재

심화연수 교재는 총 8권이며, 대부분 미국영어를 사용한 교재(예: Intensive Reading 수업 - More Reading Power (2004, Longman), Teaching Demonstration & Discussion 수업 - How to Teach English (2007, Longman))를 사용하였는데, 교실영어의 경우 영국영어를 사용한 교재(예: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2001, Longman))를 사용하여 영국영어를 접할 수 있었다. <표 10>을 보면 교재에 사용된 언어 수준은 연수생에게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고 설문에 4.08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습자의 관심과 동기유발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3.88의 만족도를 보이며 연수생들이 적절한 교재선택을 했다고 보았다.

주교재 외에 미국인들이 쓴 에세이(예: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나 영화 대본(예: Dead Poets' Society, Grease), 팝송(예: Hotel California, 99 Red Balloons), 인터넷상에 나타난 문헌(예: Water Privatization, Euthanasia), 신문 기사(예: The New York Times, The Daily Mail), 학술지(예: Teacher Education Quarterly,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광고동영상(예: McDonald's, Canon), 잡지(예: Rolling Stones) 등에서 다양하게 발췌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4.0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교재선택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수업 시 한 시간 내에 볼 수 있고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활동을 준비해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리딩 교재는 다양했으나 주로 서양의 고전을 대상으로 하여서 제한적이었다. 학습자의 기호나 수준에 맞는 소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0> 국내연수 교재

(N=24)

설문 내용	M
18. 연수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 교재인가?	4.08
19. 연수생의 관심, 수준, 동기유발을 고려한 교재를 사용하는가?	3.88
20. 연수생이 자신의 교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는가?	3.71
21. 주교재 외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가?	4.08

(6) 평가

평가는 네 종류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우선 연수 시작 전인 3월 3일에 사전 평가(Pre-test)를 실시하여 연수생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측정하여 능력별 2개 학급으로 편성하는데 사용되었고, 학습내용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국내연수를 두 세션(session)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연수 중간 평가(Mid-test)는 1차 세션이 끝난 후 5월 15일과 16일에 시행되었는데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전반을 평가하는 영어능력평가와 반 구성원과 원어민 교수 앞에서 실제 학급에서 가르치듯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교수법 평가가 시행되었다. 이 평가를 통하여 2차 세션을 위한 학급 평성을 하였다. 국내연수가 끝나고 나서 연수 후 평가(Final-test)를 실시하여 연수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정도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과목 평가(Subject-test)가 시행되었는데 담당교수가 수업 시간중이나 한 세션이 끝날 무렵에 구두나 지필로 응답할 수 있는 간단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방법이 연수생들은 연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 4.04의 만족도를 보여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였고, 연수 전, 중, 후 과정에 걸쳐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평가방법을 시행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2.92의 만족도를 보이며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만족도가 2.67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성적을 알 수 없었고, 실력의 변화도 측정할 수 없었다. 일부 과목에서만 수업 중 피드백이 제공되었고 그 외에는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아서 학업에 대한 열의를 자극하지 못했고 자기 평가의 기회로도 활용하지 못했으며 이의신청도 할 수 없었다. 또한

평가 내용이 이론적 부분이나 영어구사력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문화이해도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 11> 국내연수 평가

(N=24)

설문 내용	M
22. 연수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실시하는가?	4.04
23. 연수 진행 중에 학습 진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3.63
24.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사후 평가 결과와 비교하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가?	4.04
25.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가?	2.92
26. 연수생을 자기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가?	3.25
27.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2.67

(7) 연수생

<표 12>를 보면 연수생 선발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3.79로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반별 12명이라는 인원은 만족도가 4.17로 연수생들이 연수생활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인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수생의 사전조사가 다소 미흡하게 시행되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항목에 대해 2.83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연수생들이 요구사항이나 학습 성향 등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원하였고, 개별 연수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수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연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연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선발 시에 TOEIC, TEPS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가 유사 연수를 중복해서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충분히 우수한 능력을 소지한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배정

시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실력별 반 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연수생 기호나 학습 선호도에 따라 반 배정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2> 국내연수 연수생 (N=24)

설문 내용	M
28. 연수 대상자 선발은 타당한가?	3.79
29. 연수생에 대한 사전 요구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2.63
30. 반별 인원은 적절한가?	4.17
31. 반배정 방법은 적절한가?	3.42
32. 연수생의 학습 요구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가?	2.83
33. 연수생 개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	2.88

(8) 연수 참여 강사

심화연수를 담당한 강사수는 모두 9명으로, 미국인이 6명이고 캐나다인이 3명이며, 여자 강사는 1명이며 나머지 8명은 모두 남자 강사였다. 원어민 강사들은 모두 ESL이나 EFL상황에서 영어지도를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일부는 TESOL 자격증 또는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 13>을 보면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 교육현장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도에 대해서는 2.92라는 수치를 나타내어 다소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사들 중 강의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강사에 대한 교수방법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강사의 국적이 미국과 캐나다에 국한되어 있는데, 다양한 국적이거나 액센트(British English, Black English, Australian English 등)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강사들이 연수생이나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시행착오가 줄고

연수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 교육현장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표 13> 국내연수 강사 (N=24)

설문 내용	M
34. ESL 또는 EFL 상황에서 영어 지도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4.00
35. TESOL 자격증이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가?	3.63
36. TESOL 교사 연수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3.50
37. 한국 교육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2.92

(9) 행정지원인력

<표 14>를 살펴보면 심화연수 중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4.00로 연수생들의 학습이나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수생 자치회를 두어 연수생 대표가 연수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수생의 신분, 의무, 생활수칙에 대해서도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전달이 되었고, 근태 관리는 매일 철저히 이루어졌다.

<표 14> 국내연수 행정지원인력 (N=24)

설문 내용	M
38. 연수생의 요구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인가?	3.79
39.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가?	4.00
40. 연수생의 생활규정 및 근태 관리가 잘 갖춰져 있는가?	4.17

(10) 연수지원

본 연수에 사용된 두 강의실에는 컴퓨터와 전동 스크린, LCD Project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트북 12대가 지원되어 수업 중에 필요한 기자재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서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4.29로 높게 나타났다.

교과수업 이외에 네 차례 체험학습(field study)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월에는 보물찾기 형식으로 지령에 따라 부산의 명소를 돌면서 힌트를 모은 다음 정답을 찾아서 집결지에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생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함께 이동하였고, 서로 간에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월에는 부산 시내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실시하는 수업을 참관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에는 Homecoming Day 행사를 마련하여 부산 A대학교 영어교사 심화연수 1기생과 2기생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적용 사례발표를 통하여 연수 후 교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고, 교실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7월에는 인근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영어교육학계의 신진 이론들을 접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체험활동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3.08로 보통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연수운영자와 연수생들 간의 의사소통 원활도에 대한 만족도는 3.63이었다. 연수운영자와 연수생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고, 연수생대표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였다.

그러나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수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

의 태도나 운영방식이 다소 권위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교육가로서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수의 목적이 교수법이나 영어구사력의 향상이지만 연수 후에도 모임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생간의 친목이나 단합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다양한 체험이나 견학 프로그램이 보장될 필요를 지적하였다.

<표 15> 국내연수 연수지원 (N=24)

설문 내용	M
41. 연수 과정에 활용되는 각종 학습 기자재 제공이 원활한가?	4.29
42.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가?	3.08
43. 연수생과 연수운영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3.63

(11) 강의 만족도

<표 16>을 보면 심화연수의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88로 나타났다. 연수생들이 다소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 요목의 세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의사소통중심 과목(English communication courses)이 3.63, 교수법 과목(English education courses)이 3.88로 나타났으며, 내용중심학습 과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는데 내용중심 과목(English content-based courses)에 대해서는 3.79의 만족도를 보였고 협동학습 과목(Cooperative activity courses)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3.92로 전 영역의 강의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연수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수 요목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작문 시간에는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논설문, 연대기순 글쓰기

등)를 하였지만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고 학생 지도 시에 필요한 글쓰기 (영문추천서, 문장 수준의 글쓰기 지도 등) 연습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16> 국내연수 강의 만족도 (N=24)

설문 내용	M
44. 전반적 강의 만족도는?	3.88
45. 의사소통중심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3.63
46. 교수법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3.88
47. 내용중심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3.79
48. 협동학습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3.92

(12) 연수 환경

<표 17>을 보면 강의실 시설과 편의시설은 만족도가 각각 3.38과 3.33으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식당시설과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2.67로 비교적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표 17> 국내연수 연수환경 (N=24)

설문 내용	M
49. 식당시설과 식사는 어떠한가?	2.67
50. 강의실은 학습에 적절한가?	3.38
51.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3.33

(13) 연수 효과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연수 효과에 대한 항목에서 학생 영어지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만족도가 4.00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

타났다. 연수생의 듣기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4.08, 읽기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4.17, 쓰기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4.04, 문화이해도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4.08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꼈다. 말하기 능력과 영어 교육학 이론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도 각각 만족도가 3.88과 3.83으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연수생들은 심화연수 중 5개월간의 국내연수를 통하여 영어 구사력과 영어지도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연수 효과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배운 것도 있지만 같은 연수생들을 통해서 동기유발방법, 수업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영어학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공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표 18> 국내연수 연수 효과

(N=24)

설문 내용	M
52. 본 연수가 학생 영어지도에 도움이 되었는가?	4.00
53. 본 연수가 듣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4.08
54. 본 연수가 말하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3.88
55. 본 연수가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4.17
56. 본 연수가 쓰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4.04
57. 본 연수가 문화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4.08
58. 영어 교육학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3.83

나. 수업관찰을 통한 분석

수업관찰 일지의 기록 내용 가운데, 영어교사의 교수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수업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진 수업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

여 교육활동을 하면서 교사들이 과제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전체적인 활동 진행 과정, 교사들의 참여정도, 수업에 대한 흥미도, 교사들의 반응 등에 대해 관찰일지에 기록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 지도 방법에 관한 수업을 하였는데 이 과목은 두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의 수업을 하였다. 수업은 영어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 지도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한 후 모의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첫 시간에는 말하기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 후, 세 명이 한조를 이루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교과서의 한 단원을 제시해 주고, 교과서 내용이나 주제와 연관된 수업을 준비 하였는데, 이론수업을 할 때 배운 내용에 근거해서 지도안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정해주었다.

둘째 시간에는 조별로 모여서 수업지도안 작성을 마무리 하고, 모의수업을 할 때 사용할 파워포인트 및 자료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세 명의 조원이 모여서 학생들의 말하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떤 활동이 가장 효율적인지 선택하여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업활동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고, 자료를 제작하는 기술도 배울 수 있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았다.

셋째 시간에는 모의수업 발표를 하였는데 한 조에 20분 가량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다. 한 교사가 수업을 시연하면 나머지 11명의 교사는 학생역할을 하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교사의 몸짓이나 어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교사가 사용하는 교실영어를 들으면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힐 수 있었다. 모의수업 내용

은 모두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넷째 시간에는 조별로 모여서 촬영한 내용을 보면서 강사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시연 내용을 함께 분석하여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서로 조언을 해주었다. 평소 본인의 수업을 볼 기회가 많지 않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의미있는 수업이었다. 수업개선과 교실영어 연습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수업이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이론에서 모의수업까지 2-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 교사들은 자신의 교직 경력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다른 교사들에게 알려주었고, 이와 더불어 다른 교사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수업 기법과 운영에 대해 서로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연수를 통해 배운 것도 많지만 동료교사들에게서 수업 개선에 대한 재료를 얻은 것이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원들 앞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듯이 연습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서로 교실영어에 대한 교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었고, 발표연습을 통해 영어를 사용하여 발표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연수 기간 동안 이 과목의 수업시간에 모의발표를 교사 당 3-4회 가량 하였고, 자신이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조원의 발표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발표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수업준비에 열의를 보였고, 발표 후에 느끼는 성취감과 영어 사용 능력의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2. 국외연수 분석

가. 설문지를 통한 연수 만족도와 효과 분석

(1) 연수 목적과 교육과정

국외연수는 1개월간(2008년 7월 24일-2008년 8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실시되었다. 수업일정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 바뀌었다. <표 19>를 보면 교과목의 구성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정도였고, 교과목 선정이나 시간 배당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만족도가 3.38로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24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과목도 있고, 12명씩 임의로 나뉘어서 실시된 수업도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가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2.25로 낮게 나타났다.

<표 19> 국외연수 연수 목적과 교육과정 (N=24)

설문 내용	M
1. 연수목적이 달성되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가?	3.50
2. 연수과정이 조화롭게 구성되었는가?	3.50
3. 연수 교과목의 선정과 시간 배당이 적절하였습니까?	3.38
4. 연수생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이 제시되는가?	2.25

(2) 교수방법론

수업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론이 사용되었는데,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수업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3.92의 만족도를 보이며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수생의 수준차이를 고려하여서 수업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2.96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피드백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2.96의 만족도를 보여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표 20> 국외연수 교수방법론 (N=24)

설문 내용	M
5. 연수생의 수업 참여 비율은 적절한가?	3.92
6. 연수생의 수준차이를 고려한 교수법이 준비되었나?	2.96
7.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 교수법을 제시하였는가?	3.42
8. 수업과 연관되어 연수생 개개인에게 피드백이 이루어졌는가?	2.96

(3) 교재

교재는 수업 시간표가 국내연수처럼 주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다른 스케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매 시간 강사가 준비해 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용한 자료로는 미국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시쓰기(예: Poetry Patterns), 도표(예: 50 Graphic Organizers), 읽기 및 쓰기지도(예: Teach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연극대본(예: Readers Theater Grade 1), 품사지도(예: My Parts of Speech Dictionary) 등이 있다. <표 21>을 보면 이러한 자료에 대해 연수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였고, 연수생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에도 적절한 교재였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인가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3.71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국외연수 교재

(N=24)

설문 내용	M
9. 연수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 교재인가?	3.79
10. 연수생의 관심, 수준, 동기유발을 고려한 교재를 사용하는가?	3.71
11. 연수생이 자신의 교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는가?	3.71
12. 주교재 외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가?	3.71

(4) 평가

국외연수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시되었고, 교과목이 짧게는 2시간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길게는 14시간이 진행되었으며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반 편성을 할 때도 학교 측이 임의로 두 반을 편성하였다. 수업 중에 잘 짜여진 방법으로 내용 제시를 하였고 그 후에 간단한 테스트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표 22> 국외연수 평가

(N=24)

설문 내용	M
13. 연수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실시하는가?	2.75
14. 연수 진행 중에 학습 진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2.67
15.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사후 평가 결과와 비교하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가?	2.71
16.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가?	2.71
17. 연수생을 자기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가?	2.58
18.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2.46

(5) 연수생

국외연수의 방향에 대한 연수생 대상 사전 조사 요구는 7월초에 한국에서 한 차례 실시되었고, 미국에서 등교한 첫 날 오리엔테이션시간에 또한 차례 실시되었다. 연수 중에도 연수생의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적으로 교과목을 조정하였다(예: 발음클리닉). <표 23>을 보면 사전 요구조사에 대해서는 3.25의 만족도를 보였고, 사전조사 반영에 대해서는 3.21로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수생 개별지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2.92로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수업 중 강사 외에 조교 한 명이 수업에 참관하여 수업 보조를 하였는데, 강사의 진행에 대해서 관찰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정도여서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연수생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23> 국외연수 연수생		(N=24)
실문 내용	M	
19. 연수생에 대한 사전 요구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3.25	
20. 연수생의 학습 요구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가?	3.21	
21. 연수생 개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	2.92	

(6) 연수 참여 강사

본 연수에 참여한 강사는 7명으로 샌디에고 대학의 American Language Institute 소속의 강사가 5명이고, 이 가운데 두 명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현직교사는 수업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과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나머지 강사들은 모두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자신이 담당한 과목에 대해 여러 차례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 준비도 잘 된 상태였고 수업진행도 매끄러웠다.

하지만 한국 교육현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지 못한 듯 보여서 수업 중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연수생들이 설명을 해주어야 했고, 연수생이나 한국 중고등학생의 영어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해 연수생들은 2.83의 만족도를 보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표 24> 국외연수 강사

(N=24)

설문 내용	M
22. ESL 또는 EFL 상황에서 영어 지도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3.75
23. TESOL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3.75
24. TESOL 교사 연수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3.63
25. 한국 교육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2.83

(7) 행정지원인력

<표 25>를 보면 미국 생활과 학교 수업에 대해 연수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는가에 대해 3.71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행정지원 담당자가 친절하게 지원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3.79로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생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인력이 있어서 미국 생활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표 25> 국외연수 행정지원인력

(N=24)

설문 내용	M
26. 연수생의 요구에 친절하게 지원을 하였는가?	3.79
27.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가?	3.71
28. 연수생의 생활규정 및 근태 관리가 잘 갖춰져 있는가?	3.96

(8) 연수지원

두 개의 교실을 사용하였는데 교실에는 컴퓨터, LCD 프로젝터, 대형스크린,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표 26>을 보면 기자재의 사용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만족도는 3.75로 나타났다.

교과수업 이외에 체험활동을 제공하였는데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의 교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중상류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인의 가치와 가족생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홈스테이를 하는 외국인들도 두 명 있어서 그들이 느끼는 미국생활의 장단점과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Home Coming Day를 마련하여 본 대학교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모두 모여 야외파티를 하였다. 강사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파티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3.92로 나타났다.

연수 중 현지 초등학교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름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만 볼 수 있었고 미국 학교 교사들과 만나서 이야기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외국학교시찰이라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연수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였

고, 수업 진행을 하면서도 한국인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을 하면서 진행하여서 이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3.54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 국외연수 연수지원 (N=24)

설문 내용	M
29. 연수 과정에 활용되는 각종 학습 기자재 제공이 원활한가?	3.75
30.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가?	3.92
31. 연수생과 연수운영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3.54

(9) 강의 만족도

<표 27>을 보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75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3.79로 보통 정도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미국에서의 연수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4.13의 만족도를 보이며 아주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고, 수업기법의 향상에 만족도가 3.83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추후에도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4.17의 만족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표 27> 국외연수 강의 만족도 (N=24)

설문 내용	M
32. 전반적으로 강의는 만족스러운가?	3.75
33. 편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3.79
34.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도움이 되는가?	4.13
35. 수업기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3.83
36. 추후 영어교사 연수에 국외연수가 필요한가?	4.17

국외연수가 교실수업 위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연수생들은 우려를 표하였는데, 국내연수에서 이미 5개월간 교실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국외연수에서는 직접 현지인과 만나서 이야기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미국 교육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연수가 끝난 후에 연수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여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 수업관찰을 통한 분석

미국에서의 연수는 연수원 안에서 이루어진 수업과 문화체험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수원에서 이루어진 수업 중 수업활동과 지도에 대한 것이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예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강사는 자신이 수업 중에 사용하는 교재와 자료를 소개하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미국인 교사가 수업시연을 하는 동안 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 역할을 해 봄으로써 교실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결과물도 함께 전시를 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자극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국외연수에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미국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활동을 더욱 선호하였다. 인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써머스쿨 수업을 참관하였는데, 미국 교실 풍경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교실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미국 교실 수업 참관이라는 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였고

미국 교사들을 만나서 서로 질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랐다. 정규학기가 아니라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고 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 학교 시찰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굳이 이렇게 계획된 활동뿐만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생활상을 관찰하고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봄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국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영어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개별면담을 통한 연수 및 연수 후 효과 분석

교사 개별 면담은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석 달째인 11월 초순에 실시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중학교 교사 1인과 고등학교 교사 1인이며, 각 반의 대표로 연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헌한 교사들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은 <표 28>에 제시된 6개이다.

<표 28> 교사 개별 면담에 사용된 질문

번호	질문
1	연수에 대해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2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었나?
3	교실영어 사용면에서 달라졌는가?
4	연수 후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은?
5	국외 연수가 도움이 되었는가?
6	보다 나은 국내연수가 되기 위한 개선점은?

연수에 대해 기대한 것을 물었을 때, A 교사는 “말하기 및 듣기 능력향상, 수업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본 연수원에서 제시한 연수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 교사는 여러 연수에 참여하면서 원어민 강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회의가 들었고, 한국인 선생님들끼리 공부하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학습방법에 대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로 돌아간 후 수업 개선에 대해서는 모의수업 발표를 하고 준비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수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여 만족스러운 수업으로 꼽았다. 또한 수업을 계획한 후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배웠고, 인터넷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였다.

교실영어 사용에 대하여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연수 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라고 하여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개선과 교실영어 사용에 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토로하였는데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진도가 늦어지니까 한글을 쓰게 되었고, 학습내용에 맞게 한글을 써야 할 부분과 영어를 써서 진행할 부분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수 후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수 중에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으나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웠다고 지적하면서 연수 후에도 서로 수업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외 연수에 대한 생각은 문화체험과 다양한 종류의 영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한국인 교사들끼리 다니다 보니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국내연수에서 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영어를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내연수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하루 수업 시수가 7시간으로 너무 많았고, 배운 내용을 소화해내서 연습할 시간과 과제 준비를 위하여 개별학습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듣기와 말하기 수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원어민 강사들이 교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실제보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만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CNN 등의 뉴스를 듣는 등의 능력은 향상되지 못한 것을 들었고, 일상적인 회화연습만 되었지 논리적인 말하기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여 교사들의 필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교사들의 수준이나 필요, 수업방식에 대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연수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V. 결론 및 제안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운영에 대한 분석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수 참여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수업 관찰을 하였고, 연수 후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내연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수 목표와 방향, 교수 요목, 교재, 행정지원인력, 연수 지원, 강의 만족도, 연수 효과에 대해서는 연수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을 요구한 분야는 수업 시수, 교수방법론, 평가, 연수생, 강사, 연수 환경 등이다. 국외연수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교재, 행정지원인력, 연수 지원, 강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대체로 만족을 표하였으나 연수 목적과 교육과정, 교수방법론, 평가, 연수생, 강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강의 만족도와 연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연수와 국외연수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수업관찰과 개별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 면담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한 교사는 연수에서 듣기·말하기 실력 향상 및 수업기법 향상을 기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교사는 교사들 자체적으로 영어 의사소

통 능력과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수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수업관찰 내용에서 예시로 제시한 수업을 보면, 모의수업을 준비하고 발표 및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고, 동료 교사들에게서 수업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교사들의 요구에 부합되었고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다. 국외연수의 수업관찰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영어교사들은 교실수업에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연수에서 배우기를 원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수업의 내용이 교사들의 요구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수업이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이며 강사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향후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교사들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려할 방안을 간구해야 하겠다.

개별 면담 결과에서도, 연수를 마친 후에 교실 수업을 할 때 수업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극이 된다고 하였다. 교실영어를 자신감 있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영어 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교사의 영어능력은 영어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교사들의 영어능력 신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송석요·이선, 2004). 본 심화연수를 통해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되었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더불어 교사들의 수업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양화 되어 교실수업에서 사용할 활동에 대한 선

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으로 볼 때, 심화연수가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2. 제안

심화연수의 효과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개선점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 요목에 있어서는 이론 과목보다는 듣기·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에 시간을 더욱 안배해야 한다. <표 6>을 보면 의사소통 과목이 246시간이고 교수법 및 내용중심 과목이 375시간으로 의사소통 과목이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송석요·이선(2004)과 홍상희(2006)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수 과목으로 영어회화를 꼽았으며 연수 후에도 영어회화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 면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수업의 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듣기·말하기를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과중한 수업 시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홍상희(2006)에 의하면 교사들이 연수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원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운영방식이 뻑뻑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을 들었는데, 본 연구의 설문분석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었다. 박정기(2004)가 지적하였듯이 과중한 수업 시수에 대한 개선안으로 개별학습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자유탐구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연수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화연수에서 한 주를 단위로 고정된 시간표로 운영되었으며, 이론에 관한 한 수업에서 24명 전원에 대해 수업을 한 것을 제외

하면 모두 2개 반으로 분리되어 수업이 실시되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강사 한 명을 더 투입하며 3개의 반을 개설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교수법 이론 수업, 작문수업 등을 개설하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수 전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수준이나 요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서 수업 중에 제시한 과제가 교사들의 수준보다 너무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강사들이 미국인과 캐나다인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다양한 국적, 인종 및 액센트의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수업기법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연수 중 세 차례의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수업 중 수행평가도 수시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실력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기법에 대한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연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연수생에 대한 사전 요구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진경애(2006)의 연구에서도 연수생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별 면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연수 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연수 효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곱째, 연수생의 수업 참여 비율을 높이고 수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개별 면담에서 본 것처럼 수업이 강사위주의 일방적 수업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어서 연수생 위주로 수업을 할 필요가 있겠고, 수업방식도 강의

식을 비롯해서 다른 방식들도 적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국외연수는 체험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였다. 국내연수 5개월 동안 교실에서 621시간에 이르는 수업을 들은 후에 국외연수에서도 교실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다.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현지인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외국의 교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연수의 효과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연수 후 모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수업에서 적용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하여 연수 효과를 연수가 끝난 뒤 장시간 지속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교사들의 자율 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야 하며(배경남, 2006; 배두분 외, 2001), 교사들이 서로에게 학습의 자원, 촉진자, 개인교수, 평가자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수원 측에서 연수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태도이다. 심화연수에 대한 선행연구(김우형, 2007; 박정기, 2004; 송석요·이선, 2004; 진경애, 2006)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사항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연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Siedow 외(1985)가 제시한 연수설계 모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연수 후 평가한 결과를 다음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하여 보다 생산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능한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어실력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직 교사들이 자기연찬을 위해 심화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 자신이 훌륭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려고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이런 자기개발에 대한 열의에 부합하는 연수가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심화연수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사가 심화연수를 받기 전과 심화연수를 받은 후에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곽노행. (2001). *영어사용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정의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V*.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6년도 영어교사심화연수 기본계획: 영어교육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a). *2007년도 영어교사 심화연수 추진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b). *2007년도 하반기 영어교사 심화연수 추진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도현. (2006).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김애숙. (2004). *교실영어 사용이 중학교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김영민. (2002). *초등영어 수업의 교수언어 사용 분석*. *영어교육*, 57(4), 387-407.
- 김옥련.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도와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김우형. (2007). *합숙형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38, 193-220.
- 김재혁. (2001). *초등영어 교사연수의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영어교육연구*, 13(1), 131-161.
- 김지향. (2007).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TE)에 관한 중학교 영어교사의 인식과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희경. (2006).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한국 중학생들의 듣기·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노경희. (2006). 세계어로서의 영어와 효과적인 초등영어교사. *초등영어교육*, 12(1), 5-3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맹은경. (2006). 새로운 영어몰입연수 형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8(1), 91-112.
- 박상욱. (1996). 영어교육에서 교실영어 사용의 효과. *영어교육*, 51(1), 3-21.
- 박 원. (1992). Use English as a teaching medium. *영어교육*, 12, 3-20.
- 박정기. (2004). *국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중등영어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준연. (2007).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 진단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2007-공동-15. 교육인적자원부.
- 배두본, 최수영, 박성수, 김정렬, 윤영벌, 김준식, 한화정. (2001). 중등학교 교사 영어 원격 연수 교육과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Foreign Language Education*, 8(1), 119-154.
- 배경남. (2006). *영어교사 연수제도 연구: 중등교사 연수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연수원. (2008). *2008년도 상반기 영어교사 심화연수 O.T 자료*. 부산외국어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연수원. (2008). *교사심화연수 연수생 워크숍*. 부산외국어대학교.

- 선규수. (1998).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에 관련된 양상들의 통합. 한국초등영어교육, 4(2), 130-156.
- 송석요, 이선. (2004). 중등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분석과 교사들의 필요 분석에 근거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 교육발전, 23(2), 1-17.
- 송정실. (1999). 중등학교 영어과 일반 연수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4, 79-89.
- 우지연. (2004).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TE)이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도 유발과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원성용. (1998). 교실영어 활성화를 통한 듣기와 말하기 능력 신장 향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이규선.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관한 영어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이병화. (2007). 중등영어교사의 회화연수의 효과와 수업에서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세호. (2006).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신화. (2005).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완기, 김정렬, 박매란 (2008).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1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임병빈. (1998). 공식 연수와 자율 연수의 상호 작용을 통한 영어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영어교육, 53(4), 291-316.
- 정재후. (2001). 교실영어 활용이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

- 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정태원. (2006). *영어로 진행되는 효과적인 영어 수업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조미순. (2005). *중등학교 영어교사 양성 교육과정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조종례. (2003). *영어로 진행되는 초등영어 수업의 운영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진경애, McNamara, T., & Brown, A. (2000). *영어교사 평가시스템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I): 한·호 국제 공동연구*. 연구보고 RRE 2000-11. 서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 진경애. (2006).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교육 혁신 방안*. 교육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CRI 2006-3서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 최성우. (2007). *APEC 회원국의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ICT 활용 교육 개혁 전략기초 연구*. 정책연구 개발사업. 2007-위탁-2007116835. 교육인적자원부.
- 최윤희. (2006).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효과성 분석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은정. (2003). *중등 영어교사의 기관중심 영어연수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영어 교육 혁신 방안 공개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ORM 2006-23.
- 홍상희. (2006). *중등학교 영어과 연수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경기도와 서울시 영어과 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경대학교.

- Boo, K. S. (1998). Classroom language in teaching English.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4(1), 23-42.
- Brown, H. D. (2001a).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wn, H. D. (2001b). *Teaching by principles*. Longman: Pearson Education.
- Curtain, H., & Pensola, C. (1994). *Languages and children: Making the match*. New York: Longman, Inc.
- Ellis, R. (1990). Activities and procedures for teacher preparation. In Richards, J., & Nunan, D. (eds.),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37.
- Freeman, D. (1989). Teacher training,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A model of teaching and related strategies for language teacher education. *TESOL Quarterly*, 23(1), 27-45.
- Hammerly, H. (1986). *Synthesis in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Blain, WA: Second Language Publications.
- Harmer, J. (1992).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 Hughes, Glyn S. (1981). *A Handbook of Classroom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K.: Pergamon.
- Lange, D. (1990). A blueprint for a teachers development program. In J. Richards, & D. Nunan (Eds.),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245-2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ttlewood, W. (1988).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 (1989). A client-centered approach to teacher development. *English Language Training*, 43(3), 111-118.
- Siedow, M. D., D. Memory, & P. S. Bristow. (1985). *Inservice Education for Content Area Teachers*. Newark: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Wallace, M. (1992). *Training foreign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s, J. (1991).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Essex, England: Longman.
- Woodward, T. (1991). *Models and metaphors in language teacher trai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S. Y. (2008). The intensive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in Korea: A study of participants' reflections and implementation in the classroom.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94-99.

부 록

<부록 1> 국내연수의 만족도 및 개선안에 대한 설문지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만족도 및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
(국내연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그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7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은성 올림

※ 다음은 본 조사의 통계적 처리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 해주십시오.

1. 성별: 남자 여자
2. 근무학교 계열: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기타()
3. 교직경력 (2008년 7월 기준):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4.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5. 임용방법: 의무발령 임용고시 사립공채 기타()

※ 해당 사항에 V표 해주십시오.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수 목표 와 방향	6	연수 목표는 적절한가?					
	7	연수의 방향은 적절한가?					
교수 요목	8	연수목적이 달성되도록 교과목이 구성 되어 있는가?					
	9	각 교과목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있는가?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업 시수	10	연수생에게 적절한 수업 시수였나?					
	11	연수생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이 제시되는가?					
	12	각 교과목의 수업 시수가 연수목표를 고려하여 배정되었는가?					
교수 방법론	13	연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나?					
	14	좋은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는가?					
	15	교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활동을 보여 주는가?					
	16	연수생 참여식 수업 비중이 적절한가?					
	17	연수생의 수준차이를 고려한 교수법이 준비되었는가?					
교재	18	연수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 교재인가?					
	19	연수생의 관심, 수준, 동기유발을 고려한 교재를 사용하는가?					
	20	연수생이 자신의 교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는가?					
	21	주교재 외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가?					
평가	22	연수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실시하는가?					
	23	연수 진행 중에 학습 진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24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사후 평가 결과와 비교하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가?					
	25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가?					
	26	연수생을 자기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가?					
	27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수생	28	연수 대상자 선발은 타당한가?					
	29	연수생에 대한 사전 요구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30	반별 인원은 적절한가?					
	31	반배정 방법은 적절한가?					
	32	연수생의 학습 요구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가?					
	33	연수생 개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					
강사	34	ESL 또는 EFL 상황에서 영어 지도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35	TESOL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36	TESOL 교사 연수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37	한국 교육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행정 지원 인력	38	연수생의 요구에 친절하게 지원을 하였는가?					
	39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가?					
	40	연수생의 생활규정 및 근태 관리가 잘 갖춰져 있는가?					
연수 지원	41	연수 과정에 활용되는 각종 학습 기자재 제공이 원활한가?					
	42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가?					
	43	연수생과 연수운영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강의 만족도	44	전반적 강의 만족도는?					
	45	의사소통중심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46	교수법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47	내용중심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48	협동학습 과목에 대한 강의 만족도는?					
연수 환경	49	식당시설과 식사는 어떠한가?					
	50	강의실은 학습에 적절한가?					
	51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연수 효과	52	본 연수가 학생 영어지도에 도움이 되었는가?					
	53	본 연수가 듣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4	본 연수가 말하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5	본 연수가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6	본 연수가 쓰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7	본 연수가 문화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58	영어 교육학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그 외 기타의견이나 영어교사 연수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긴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국외연수의 만족도 및 개선안에 대한 설문지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만족도 및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
(국외연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중등 영어교사 국외연수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그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은성 올림

※ 해당 사항에 V표 해주십시오.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수 목적 과 교육 과정	1	연수목적이 달성되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가?					
	2	연수과정이 조화롭게 구성되었는가?					
	3	연수 교과목의 선정과 시간 배당이 적절하였습니까?					
	4	연수생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이 제시되는가?					
교수 방법론	5	연수생의 수업 참여 비율은 적절한가?					
	6	연수생의 수준차이를 고려한 교수법이 준비되었나?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수 방법론	7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 교수법을 제시하였는가?					
	8	수업과 연관되어 연수생 개개인에게 피드백이 이루어졌는가?					
교재	9	연수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 교재인가?					
	10	연수생의 관심, 수준, 동기유발을 고려한 교재를 사용하는가?					
	11	연수생이 자신의 교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는가?					
	12	주교재 외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가?					
평가	13	연수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를 실시하는가?					
	14	연수 진행 중에 학습 진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15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사후 평가 결과와 비교하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가?					
	16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가?					
	17	연수생을 자기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가?					
	18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수생	19	연수생에 대한 사전 요구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20	연수생의 학습 요구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가?					
	21	연수생 개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					
강사	22	ELS 또는 EFL 상황에서 영어 지도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23	TESOL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24	TESOL 교사 연수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25	한국 교육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행정 지원 인력	26	연수생의 요구에 친절하게 지원을 하였는가?					
	27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가?					
	28	연수생의 생활규정 및 근태 관리가 잘 갖춰져 있는가?					
연수 지원 인력	29	연수 과정에 활용되는 각종 학습 기자재 제공이 원활한가?					
	30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가?					
	31	연수생과 연수운영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항목	번호	설문 내용	구분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강의 만족도	32	전반적으로 강의는 만족스러운가?					
	33	편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3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도움이 되는가?					
	35	수업기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36	추후 영어교사 연수에 국외연수가 필요한가?					

※그 외 기타의견이나 영어교사 연수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긴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3> 국내연수의 개선점에 대한 기타의견

설문지 번호	기타의견
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연수에서 교실연수보다 국외체험 1개월이 더 효율적이다. - 교수 요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영어교육정책 등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 연수생이 쉴 수 있는 시설이 없다.
T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수가 너무 많고, 수업 시수가 너무 많다. - 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의 성적을 공개하면 좋겠다. - 교과수업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포함되면 좋겠다.
T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보다 연수생이 수업한 내용을 복습하고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주어지면 좋겠다. - 반배정시 교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므로, proficiency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연수생의 희망이 우선되었으면 한다. - 연수교과목을 정하기 전에 사전요구조사가 전혀 없어서 연수생의 의사가 교육과정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의자가 불편하였고, 휴게실이 있었으면 한다.
T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상 수준별 수업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사전, 중간, 사후평가) - 일반추천 방식만 기준을 삼았으면 한다. - 수업이 많은 강사가 많았고, 피곤함과 다른 업무를 하느라 바쁜 강사들은 연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 식당 메뉴가 가격에 비해 질이 낮았고 의자가 다소 불편하였다.
T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수가 너무 많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 - 교수들의 한국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요구된다.
T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T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수는 매일 6시간이 적절하다. 매일 1시간은 자습시간(study hall)이 필요하다. 중복되는 과목이 있다. - Reading 교재 다양했으나 수준이나 개인 기호에 맞춘 도서도 포함했으면 한다. - 영미문화 이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듣기·읽기 위주의 평가는 한계가 있다. - 기장연수를 받고 또 다시 심화연수를 받거나 여러번 연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연수를 받지 못한 교사 입장에서는 편향된 선발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 강사의 국적이나 엑센트가 더 다양하기를 원한다. (British English, Black English, Australian English 등) - 강사들의 연수생, 한국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목표 달성이 잘될 것이다. - 매일 7시간씩 앉아 있는 과정 특성상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마련되기를 요망한다. - 연수생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교수 요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설문지 번호	기타의견
T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연수를 중복해서 받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이는 TOEIC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직전 연수경력이 오래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 진정한 교사 재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충분히 우수한 능력을 소지한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T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7시간 수업은 너무 힘들다. 하루 5시간이 적당하고 수업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자습시간이 필요하다.
T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능력, 특히 listening/ speaking 시간이 부족하다. - 교사 수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연수 최소 1~2개월 전 대상자 의사 반영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 피드백은 일부 과목에서만 이루어졌다. 전 과목 평가후 피드백이 필요하다. - 다양한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수의 효과는 연수생들과의 친목 및 단합과도 연관되어 있다. - 식당의 시설이 열악하였다. -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시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T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이 이론편에 집중되었다.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강좌가 부족하다. - 지나치게 많은 교과목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산되었다. - 지나치게 강사위주, 강의식의 수업이었다. - 많은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 적은 자료라도 좀 더 꼼꼼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 개별과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즉시 제공되지만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받지 못하였다. - 학습요구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강의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강사들에 대한 교수방법 훈련이 필요하다. - 행정지원면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지원을 제공받았다. - 연수생을 대학의 재학생처럼 간주하지 말고, 교사 또한 전문적인 교육가이며 교육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 말하기·쓰기·읽기·강의가 좀 더 심도 있고 일관된 실습위주였으면 한다. 대체적으로 중심이 없고 일회성의 활동이 되었다. - 같은 동교교사들을 통해 동기유발, 수업아이디어 및 학습방법을 제공받았다.
T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수업 시수를 1시간쯤 줄여보면 좋겠다. - 교과 선택권이 없다. -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교수와는 의견조정이 필요하였다.

<부록 4> 국외연수의 개선점에 대한 기타의견

설문지 번호	기타의견
T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통한 연수도 중요하겠지만 연수생이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개별활동 시간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T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기간 동안 영어 회화 실력이 향상되는 것 보다는 교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참고도서와 활동모음집 등을 소개해 주고 몇 가지 실제로 해보는 수업이 좋겠고, 한국의 회화 학원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회화 수업 대신에 문화 체험이나 잘 짜여진 특강 등이 더 좋겠다.
T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국내 연수에서 많은 시간 수업을 받고 떠나는 연수이므로 굳이 교실에서 수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일선학교에서 보조교사 혹은 봉사활동단체 등에서 직접 현지인과 일대일로 부딪히는 기회가 없는 한 영어가 늘지는 않는 것 같다. - 문화체험의 면에서는 좋은 기회였으나 오히려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영어로 말할 기회가 국내보다 더 적었다.
T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 있었지만 오히려 영어사용의 기회는 본인이 만들지 않으면 연수생들끼리 어울려 한국말을 더 많이 사용할 우려가 많았다. 홈스테이를 병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방학 중에 국외연수를 가다보니 외국의 초중등학교들도 우리처럼 방학을 하여 실제 외국의 수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별로 의미가 없었다. 썸머스쿨도 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 혹은 우리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곳의 현지 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 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국외연수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국외연수를 포함한 영어교사 심화연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나, 연수 과정 중에도 그렇고 그리고 연수 후에도 정작 그것을 적용하여 수업에 응용할 시간적 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수일정을 짜는 듯하다. 연수 중간에 배운 것을 소화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연수중에 모았던 많은 자료를 교실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속적인 추후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설문지 번호	기타의견
T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연수 시 중국, 일본의 교사연수생과 수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 교환과 다문화 이해 등 좋은 점이 많을 것 같다. - 학교 견학시에 씬머스쿨 밖에 보지 못해 아쉬웠고 다양한 학교의 수업과 학생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 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교수법이 있었고 교과서 진도에 부담을 느끼는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교재도 있었다. - 국외연수에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T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연수 때 강사나 교수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지만 동료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 - 교사자신의 영어듣기나 토익시험을 위한 시간도 편성되었으면 한다.
T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미국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T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L상황의 교수법이 더 많이 고려되고 제공되길 바란다. - 숙소 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다.
T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영작의 비중이 크므로 영작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고급영작 실력을 키웠으면 한다. - 연수생이 모두 중등학교 영어교사이므로 너무 초보적인 언어 지식이나 원론적인 긴 이론보다 실질적인 수업방식소개가 필요하다.

<부록 5> 수업 관찰 일지 예시

날짜	2008년 4월 7일 월요일
구분	관찰내용
1교시	<p>과목 : Reading & Discussion</p> <p>진행방법 : Call my bluff! 게임을 하었는데,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단어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를 말하고 자신의 말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상대팀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내는 게임</p> <p>느낀 점 : 철자가 유사한 단어 또는 의미가 헷갈리기 쉬운 단어의 뜻을 제시해 주고 답을 찾아내도록 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연습이 될 수 있다. 세 명에서 각기 보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실인 양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감정을 실어서 말을 전달하는 연습이 된 것 같다. 교사들은 즐겁게 참여하였고, 영어 말하기와 듣기 연습이 되어서 좋았다. 교실수업에서 이용 가능할 듯하다.</p>
2교시	<p>과목 : American Culture</p> <p>진행방법 : 미국과 한국의 cultural difference를 13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제시하여 읽을 시간을 준 후, 그 중 한 가지에 대해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토론해 보고, 반 전체가 각자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p>
3교시	<p>느낀 점 : 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문화차이를 분석한 글이라 새로운 시각에서의 문화차이 설명이라서 신선하였고, 미국과 한국의 의식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사들은 토론의 주제에 몰입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글을 간소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듯하다.</p>
4교시	<p>과목 : Conversation</p> <p>진행방법 : 5분 정도의 BBC뉴스를 보고 미리 나누어 준 학습지의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연습 후 그와 같은 패턴의 연습 예문 3개를 만들어 보고, 2명씩 짝을 이루어 자신의 예문을 이용한 대화연습을 하였다.</p>
5교시	<p>느낀 점 : 듣기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뉴스를 5분가량 통째로 보는 것은 교사들의 수준에 상회한다는 반응이었다. 예문을 이용하여 대화연습을 할 때는 각자가 대화주제를 결정하여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p>
6교시	<p>과목 : Designing Curriculum & Methodology</p> <p>진행방법 : 영화, tv프로그램 등의 영상물을 이용한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장, 단점 및 유의사항, 영상물을 이용한 수업적용 예시를 제시한 후, 교사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 실제로 교실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activity를 하나씩 제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유하였다.</p>
7교시	<p>느낀 점 :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른 교사들이 어떤 활동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었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좋았다. 이미 다른 교사들이 적용해 본 활동들이기에 교실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중에 사용했던 활동을 영어로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p>

<부록 6> 개별 면담 내용

질문 1 < 연수에 대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

교사 1 제가 이 연수에서 기대한 것은 일단 중학교 영어교사로서 우선 필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실에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입니다. 둘째는 듣기입니다. 이것은 수업연구나 교육청에서 하는 연구동아리에 가도 코칭 교사들이 오면 영어로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은데 빠른 속도로 하는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교과서만 하나 달랑 들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수업이 진행이 안돼요. 그래서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흥미를 이끌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없을까 이 세 가지가 제일 크게 필요한 거였고 연수에서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사 2 여러 가지 단기 연수를 받았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원어민 선생님한테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수를 받으면서 네이티브 스피커는 오히려 우리 한국 동료 교사들보다도 배울게 없다는 결론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이번 6개월 동안 같은 한국인 선생님하고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라던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수업 아이디어도 배우고 한국인 선생님들끼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공을 하면 우리 애들도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 확인해보고 싶어서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교사 1 영어 지도 방법에 관한 수업시간에 발표준비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발표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수업 중에도 영감을 좀 받았어요. 이걸 이렇게 쓰이면 되겠고, 순간순간 떠올랐는데 그걸 못 찾아서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요. 연수중에 이 아이디어는 참 좋구나, 학교에서 사용해봐야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잘 메모해놓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수 후에도 서로 수업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사 2 일단은 쓰기든 말하기든 영역별로 관계없이 어떤 수업을 하고자 하면자료라던가 어떻게 가르쳐야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이제는 확실히 안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을 활용해서 거기 있는 자료들을 내 수업 자료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배운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영어로 말하면서 하는 수업에서 가장 자신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 시간 내내 영어로 분명 할 실력은 우리 모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시간 내내 영어로 떠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됐던 거 같아요. 자신감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훈련이 부족해서요. 이번 장기연수 동안에 하루에 일곱 시간 수업을 받으면서 계속 영어로 떠들었던 부분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질문 3 < 교실영어 사용면에서 달라졌는가? >

교사 1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진도가 늦어지니까 한글을 쓰게 된다. 영어로 수업해야지 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한글을 사용하게 된다. 영어로 수업을 해도 아이들에게 침투가 안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교실영어를 썼는데, 그건 이기적인 것 같고, 아이들이 한글로 하자고 하니깐 한글로 수업하게 되요.

교사 2 일주일에 한 번 재량수업 시간에 계속 영어로만 하거든요. 3개월째 하니깐 애들이 이제 영어로 반응을 보이고 자기들끼리 조별로 처음에는 절대로 영어로 안해서 혼자만 영어로 했는데 요즘은 조별로 자기들끼리 영어로 주거나 받거나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교사 면에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수업자체가 창의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본받을 만한 스타일의 수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 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특정한 부분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45분 수업에서 15분 ~ 20분 정도 특정 영역의 활동만큼은 반드시 영어로 하고 학습내용에 맞게 한글과 영어를 배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질문 4 < 연수 후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은? >

교사 1 개인적으로는 영어공부를 해보려고 어휘공부 책을 샀어요. 연수에
서 알게 된 어휘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서 단어퀴즈도 풀고 있어요.
내가 어휘가 부족하니까 어휘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듣기를 공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에서 사용
해 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사 2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수업에 관한 내용도 나의 영어 공부가 되도
록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는 문제풀이 형식이긴 하지만 그
지문 자체를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제는 그 글 자체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영어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데 문제 풀이 하고 난 다음에 영어로 간단히 한 두 문장으로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요약해 봐요.

연수생들과는 관심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어
요. 원어민 강사에 의존하지 말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
와주었으면 해요.

질문 5 < 국외 연수가 도움이 되었는가? >

교사 1 영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좋았어요. 밖에서는 온통 다 영어만 써야 되니까요.

교사 2 문화적인 부분이나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수에서 가장 감사드린 부분이 바로 국외연수 같이 했던 거예요. 영어실력 향상과 관련지어서는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고, 스페니쉬 액센트 같은 여러 가지 액센트의 다양한 영어를 접할 기회는 좋았지만 영어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한국에서의 연수보다는 비효율적인 듯해요. 교사들끼리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서 영어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 6 < 보다 나은 국내연수가 되기 위한 개선점은? >

교사 1 수업이 많은 것이 부담이었고 역효과였던 듯합니다. 듣기와 말하기 수업에 체계성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전에 다른 연수를 들을 때 3분 스피치를 연습할 때 조를 이루어서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데 각자 해야 할 역할과 시간을 정해줘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을 연습할 기회가 없었고 회화위주로만 하지 세련된 영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듣기와 발음연습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강사들이 한국식 강의에 젖어서 일방적인 수업을 해서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적었어요. 연수 전에 커리큘럼을 미리 설명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었어야 해요. 그리고 연수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야기 하면 학생취급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해요.

교사 2 강사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한국인 교사들의 수준이나 필요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수업방식도 일방인 강의수업으로 진행하였어요. 일상대화를 하는데 편안해 졌지만 논리적인 말하기 연습은 되지 않았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가 다양한데 불필요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 만드는 수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고, 불만사항을 이야기 할 때 방어적인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